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 원 자 : 구미시 봉곡동 392 현대아이파크 204/1302 이용원 외 6,683명

2. 소개의원 : 구미시의회 의원 권기만

3. 청원사유(내용)

- 구미공단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과 해외로 빠져 나가고, 하청 단순 제조업종은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등 구미 경제가 매우 어려움.
- 최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익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가 통합대학 출범을 눈앞에 두고 제주대와 제주교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 계획 승인이 다음달 결정·발표 예정이며,
- 지자체와 대학교(대학)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도 하며,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까지 통합하는 추세이나 경북대와 금오공대의 통합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 2003년 LG필립스 LCD(주)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우수연구기술 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기도 파주로 이전하게 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이 우수연구기술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지역혁신과 지역발전 전략은 탁상공론임

- 따라서, 지난 4월 경북대 총장이 제안하고 금오공대 총장이 동의한 “경북대 공대가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은 금오공대의 수준을 높여, 구미공단의 고질적 문제인 우수연구기술인력 공급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며 구미 공단과 지역 사회 발전의 절호의 기회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틀과 위상을 높일 것임.
- 이러한 실정에도 경북대 공대 교수들이 정주 여건이 부족한 중소 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반감과 금오공대 교수들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학 교수들의 이기주의가 최우선 장애로써 통합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구미사랑시민회의는 경북대와 금오공대가 연내에 통합 결렬 시 교착 상태에 빠진 통합 교섭을 압박하기 위하여 산학관 협력사업 대응 예산을 비롯한 모든 예산을 2008년 당초 예산부터 전액 삭감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안” 채택을 청원함.

4. 참고사항

- 『 지방자치법 』 제73조

5. 검토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시 제2006-54호(2006. 6. 15)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등 통·폐합 기준」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 대학교간 통합은 현실적으로 구미시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절실한 과제임.
- 2003년 LG필립스 LCD(주)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우수연구기술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기도 파주로 하는 등 구미공단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가 수도권과 해외로 빠져 나가고

하청 단순 업종은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등 구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일련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북대 총장이 제안하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이 동의한 “경북대 공대가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은 금오공대의 수준을 높여 구미 공단의 고질적 문제인 우수연구기술인력 공급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틀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 개혁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통합 성공 사례 : 전북대 - 익산대 통합 계획(안) 승인
계획 통보(교육인적자원부 2007. 10. 5)

-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간 의견차이로 인해 통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을 시민에게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산학관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조치는 국책사업추진이나 중소기업 지원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양 대학교(총장) 및 집행기관(구미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양 대학간 통합을 촉구하고,
- 향후 대학통합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합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토록 요구 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경북대학교와 금오공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

의견서(안)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통·폐합 기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간 통합은 우수연구기술인력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임

뿐만 아니라, 구미공단을 선도하는 대기업이 우수연구기술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권과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 데 보탬이 될 것이며, 경북도와 대구간 경제 통합 및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중요하고도 절실한 사안이 대학(교수)간 의견차이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함.

다 음

-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간 통합은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타시·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 간 행정통합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는 물론, 사립대학교까지 경쟁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 대학은 물론, 구미시는 대학통합추진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 이와 관련하여 첨단지식산업인프라구축차원에서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참여·추진하여야 할 것임.
- 향후, 통합추진이 양 대학간의 소극적인 자세로 통합이 지연되거나 또는 무산될 경우에는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더불어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국립대의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 촉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북대 공대가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식의 통합”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함.

2006. 10.

구미시의회 의원일동